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한 운임제도 대안 정책연구

A study on Fare system Alternative policy for Increasing User convenience

정경덕*, 최갑봉*, 유영희*, 이향숙*

Kyeong-Duk Jeong*, Gab-Bong Choi*, Yeong-Hee Yoo*, Hyang-Sook Lee*

Abstract Effective from '15.6.27, Seoul City was performed public transport fare hikes as well as the “Free Pre-Peak Travel”(early morning discount fare) at the first time in Korea.

“Early morning discount fare” means that you get a 20% discount on the fare if you take the subway and bus from the first train start time to 6:30 am. Enforcement one years, total 6,940 million people (22 million people a day) have been analyzed to receive the discount.

In this paper, through traffic demand flexible pricing introduced form as “Free Pre-Peak Travel”(early morning discount fare) problems improvement of discounts existing commuter pass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effects of institutional measures, various foreigners fare discount system case studies, such as overseas advanced cities aggressive than for commuting parties and foreign discount research institutions, and technology.

Keywords : Free Pre-Peak Travel, Differential pricing, Unlimited Ride Ticket, commuter, fare system

초 록 서울시는 '15.6.27 대중교통요금인상과 아울러 국내 최초로 조조할인제를 시행하였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것으로 제도 시행 1년간 총 6,940만명(하루 22만명)이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통수요에 탄력적인 요금제 도입형태로서의 조조할인제도의 도입효과 분석과 함께 기존 정기권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해외 선진도시의 다양한 외국인 대상요금할인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통근 통행자 및 외국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할인제도를 연구, 기술하였다.

주요어: 조조할인제, 차등요금제, 정기권, 통근통행자, 운임제도

1. 서론

서울시가 '15.6.27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조조할인요금제는 새벽 시간대(첫차~06:30) 버스·지하철 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통근통행자의 교통복지확대와 대중교통 혼잡 분산을 위해 시행했다.

본 논문에서는 통근 통행자 및 외국인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임할인제도를 도출하기 위해 우선 서울시의 조조할인요금제의 시행효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기존 정기권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과 해외 선진도시의 다양한 외국인 대상 요금할인 제도 사례조사순서로 기술하고자 한다.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연구원

2. 본 론

2.1 조조할인요금제 효과 분석

서울시가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조조할인제를 시행한 이후 1년('15.6.27.~'16.6.26)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¹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동 기간자료와 제도 시행 전('14.6.27~'15.6.26) 같은 기간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들의 교통카드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15.6.27(토)부터 365일 동안 일평균 이용객수는 11,953천명으로 시행 전 동기 대비 294천명 감소(2.5%↓)하였으나, 조조할인을 받은 승객은 일평균 218,1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05명(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조 시간대 이용 승객은 평균적으로 239원/일을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1년 평일을 기준(249일)으로 환산해 보면 약 6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한 달 교통비가 5만원(1,250원×20일×2회)이라면, 1년 중 1달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하는 셈이다. (* 기본 요금 거리(10km) 출근하는 직장인 기준)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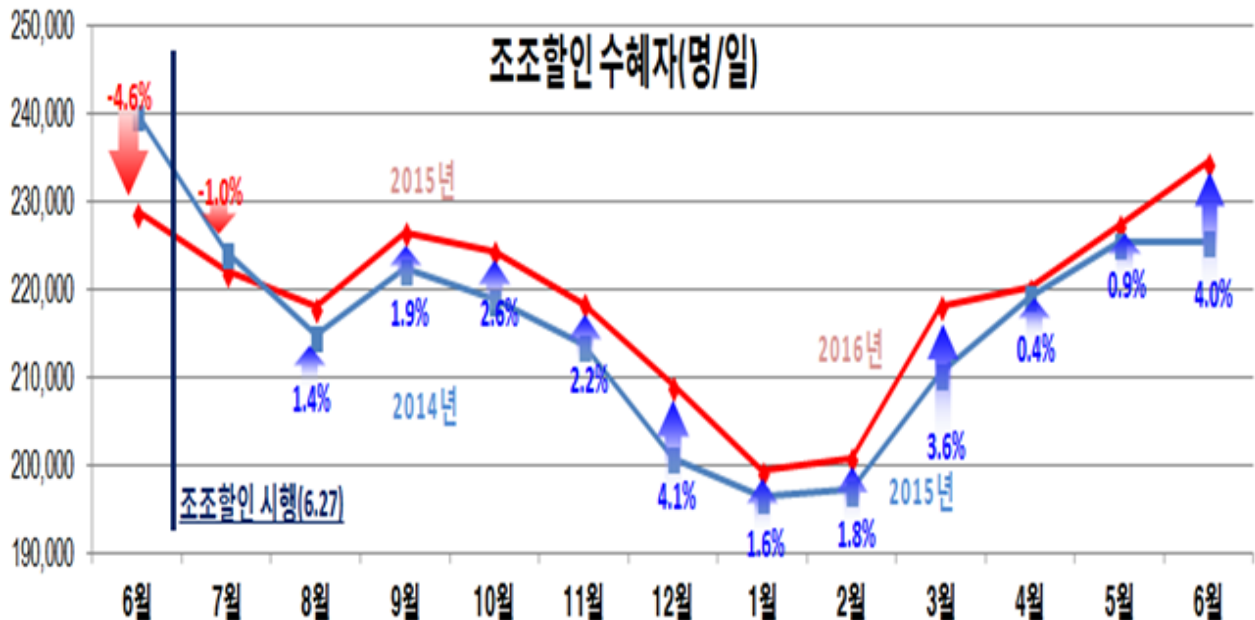


Fig. 1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할인 혜택 적용된 통계

2.2 승객이용패턴 변화 분석

출근시간대 대중교통 이용패턴에도 변화가 있었다. 조조할인 시행 이전에는 출근시간대 승객이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으나 제도 도입 이후부터는 첫차~06:30까지 승객이 급증하다가 할인이 끝나는 시간을 기점으로 잠깐 줄었다가 06:40 경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Fig.2)

¹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자료,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 이용현황분석』에서 참조,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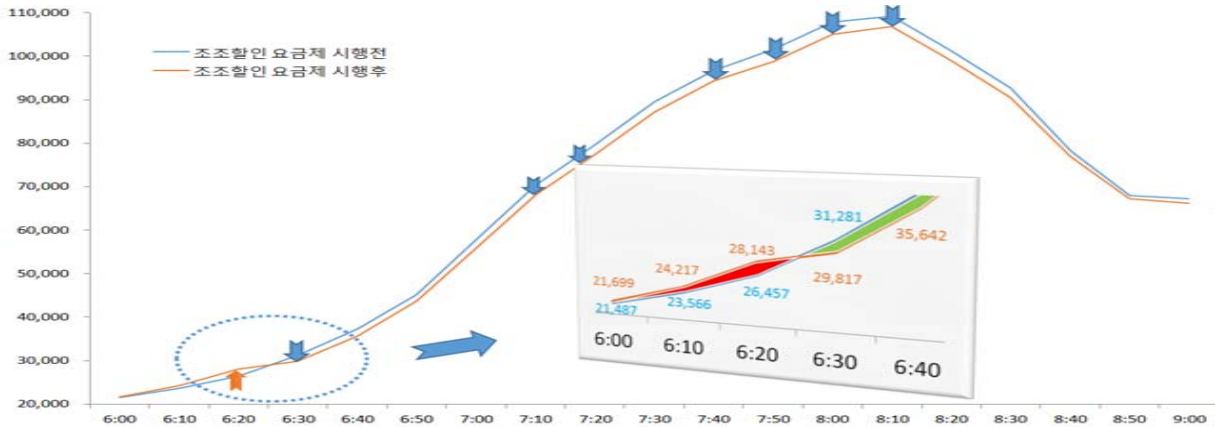


Fig. 2 시간대별 대중교통 초승 이용객 증감 현황

서울시는 대중교통 전체 승객 감소(2.9%↓)와 짧은 할인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조할인 시행 이후 일평균 2,078명이 대중교통 이용시간을 바꾼 것으로 보아 조조할인이 교통 복지 및 대중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2.3 정기권 제도 개선 방안

현행 정기권 제도는 수도권 도시철도의 지불수단이 교통카드화하면서 '05년 7월 16일부터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06년 5.1%수준에서 매년 감소하여 '15년에는 3.0%수준까지 이르러 정기권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정기권은 통근통행 등 수도권 도시철도를 정기 이용하는 고객들의 주이용 대상인 승차권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용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운임혜택면에서나 사용편리성면에서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운임 혜택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장거리 통근 통행자 운임부담 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 기본운임에 15%를 할인혜택이 돌아가는 서울전용 정기권이용자이외에도 시계외구간 이용자 입장에서라도 이용거리에 따른 운임혜택이 대폭 할인되어 서울시계내구간 이용자에 비해 더 높은 운임을 내야 하는 상대적 불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편리성 측면에서도 수도권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환승할인적용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의 도입과 그 손실에 대한 각 운영기관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인 보전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Fig. 3 정기권 이용률 추이(서울메트로 기준)

2.4 해외 선진도시의 다양한 요금할인제도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M-pass는 2011년 12월 발행된 외국인전용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수도권 전철과 서울 시간선 버스를 1일 최대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는데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다.

기간별	1일권	2일권	3일권	5일권	7일권
금액	10,000원	18,000원	25,500원	42,500원	59,500원

Fig. 4 M-Pass 이용 기간별 금액

반면, 해외 선진도시 중 파리시 대중교통 티켓 6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cket t + - 1회권 티켓(90분 사용) - 1.8유로 - 이용가능한 교통수단 : Bus/Tram/Metro/R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rnet : 1회권 Ticket t + 의 10묶음 - Carnet로 구매시 3.9유로 저렴 - 2인 이상 여행자는 두사람이 Carnet를 사서 나누어 사용가능 - 파리에 머무는 시간이 짧은 단기 여행객에게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bilis - 1일 무제한권으로 존(구간)은 원하는 대로 선택가능 - 존 별 가격 7유로(1~2존)부터 16.6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vigo - 1주일권 및 한달권이 있고, 기간제 무제한권 - 보증금 5유로와 증명사진 필요 - 장기 여행자에게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cket Jeunes Week-end - 만 26세 미만 주말 또는 공휴일에 사용하는 1일 무제한권 - 모빌리스의 반가격에 해당 - 주말에 파리에 머무는 만 26세미만의 젊은 여행객에게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aris Visite - 파리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티켓 - 1,2,3,5일 중 1~3존, 혹은 1~5존 중 선택하는 무제한권 - 특이사항 : 13~14곳의 연계된 관광지 할인혜택이 있음

Fig. 5 프랑스 파리시 대중교통권 6종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정액권 이용 시 5.5달러 이상 충전 시 11% 가 보너스로 보충되는 혜택과 총 5가지 종류의 정기권 종류가 통용되고 있으며, 영국 런던시는 요금상한제를 정하여 정해진 Zone내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일정금액 이상 지불되지 않도록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기권(1일/1개월/3개월/6개월) 및 대부분의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에 이용가능한 IC카드인 PASMO카드 등의 승차권이 있다. 그뿐 아니라 주말 가족권, 승용차

이용자 패키지(1일 패스+무료주차권), 공항패키지(공항버스+1일 패스) 등 환승을 대신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한 특별 승차권을 제공하고 있다.

3. 결 론

우선 통근통행자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할인제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본론에서 조조할인제도 시행 1년간의 효과성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할인폭, 시간대 확대 등 적극적인 시도가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정기권의 경우 수도권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환승할인적용이 가능한 통합정기권의 도입과 그에 따른 각 운영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지자체에서의 실질적인 보전정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대상 교통카드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격할인뿐만 아니라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좀더 유연하고도 다양한 형태의 도입을 제안한다.

4. 참고문헌

- [1]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자료, 『대중교통 조조할인 요금제 이용현황분석』
- [2] 광병문, 『수도권 도시철도 통근이용자 운임부담 완화 방안 연구:서울메트로를 중심으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15.2월)
- [3] 각 도시 교통국(http://www.wmata.com/about_metro, <http://www.translink.bc.ca>, <http://www.mta.info/metrocard/mcgtreng.htm>, <http://www.tfl.gov.uk/tickets>, <http://www.traffiq.de/fm>)